



도깨비 이야기를 다룬 극단 예사동의 '살어리랏다' 공연 장면. (광주서구문화원 제공)

광주서구문화원 '광주시민연극제'

11월1~3일, 9~10일 총 5회  
빛고을국악전수관·씨어터연바람



극단 정거장의 '로맨스 그레이' 리허설 모습.

# 주먹밥·충장포차·도깨비...연극에 녹여낸 광주 이야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기 싫은 도깨비 이야기', '충장포차에 얽힌 순례 할머니의 40년 인생사', '5월 주먹밥 행사장에서 회상하는 광주민중항쟁의 기억', '강제 철거 기로에 선 건물 세입자들의 목소리'...

광주의 이야기와 삶을 다룬 네 편 연극이 시민 곁을 찾아온다.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오는 11월 1~3일, 9~10일 총 5회에 걸쳐 빛고을국악전수관, 씨어터연바람에서 펼쳐지는 '제10회 광주시민연극제'에서다.

1일 오후 7시(빛고을국악전수관)에 펼쳐지는 개막작은 극단 예사동의 '살어리랏다'. 이 작품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자신의 능력마저 잃어버린 도깨비와 신이 어떻게든 연명하려는 모습을 극화했다.

앞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어둠 속 희미한 부지깽이(김경남·박정숙 분), 씨라비(정진희), 삼대기

(박지유)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윽고 파란 불꽃 세 개가 '뿡' 하고 터지더니 사물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춤추고 노래한다.

이들 도깨비는 어느 날 신문기사를 통해 아프리카 인간들이 화목하게 어울려 산다는 소식을 접한다. 인간을 데려오자는 꾀를 내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무용담은 '공생'의 가치를 환기한다. 측간신역에 강명임, 짚신 도깨비로 노미숙, 노정오, 김유정이 출연하며 연출에 박정은.

2일(빛고을국악전수관), 3일(씨어터연바람) 오후 3시에 상연하는 '낭만과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도 주목받는 공연이다. 화사한마을극단과 프로젝트 도담도담이 함께 선보이는 이 작품은 '광주시 창작회곡공모' 수상작이다.

옛 전남도청 가는 길에 놓인 색 바랜 주황색 포장마차 하나, 정도 많고 속도 많은 순례 할머니(안혜옥·이정은)는 홀로 살며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고

있다. 칠순을 바라보던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핀'다. 무단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연이 작품에 실린다.

광식역에 이미경, 이경선 등이 출연한다. 직장인 중심으로 구성된 도담도담과 동네 주민으로 이뤄진 화사한 마을극단이 각각 극단 특성에 맞게 연기를 펼친다.

9일(오후 3시) 씨어터연바람에서 선보이는 극단 행복드림의 '이팝꽃 질 때'도 이목을 끄는 작품이다. 연출에 조혜수.

그해 5월, 시장에서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엄마(최연숙)는 딸(송주영)의 방에서 유인물 하나를 발견하고 밖을 뛰쳐나간다. 주먹밥 봉사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아짐들'은 5·18에 대한 여러 대화를 이어가고, 이 곳에 엄마가 등장해 행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0일(오후 3시) 폐막작 '로맨스 그레이'는 극단

- '살어리랏다'
- '낭만과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
- '이팝꽃 질 때'
- '로맨스 그레이'

정거장이 준비했다. 이들은 2012년 서구문화원 문화교실 연극반 수강생들이 모여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극단이다.

도시 공동화 현상과 원주민의 갈등을 조점화한 시놉시스 눈길을 끈다.

극 중 광주 서구 원도심 변두리는 하루하루 낙후되어 간다. 허름한 4층 건물주 이대로(장상문)는 3

층을 사무실로 쓰고, 1층에는 그의 친구 김철수(강만)의 칼국수집과 곱상한 안희지(신명옥)의 꽃집이 자리잡고 있다. 밤무대 출신 가수가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2층에 등지를 틀었다.

어느 날 퇴거 명령이 떨어지자 거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나 쉽지 않다. 결국 최종 통첩으로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조차'가 통보되고 전 원인이 그에 맞서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폐막작 상연 후 최우수 작품상 및 연기상, 연출상 등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문화원 정인서 원장은 "이번 연극제에 앞서 지난 4~7월 무대에 오를 참여 극단을 모집했고, 그 결과 5개 지역극단이 선발된 것이다"며 "우리네 시민들의 일상과 삶을 담은 극작품을 준비했기에 관객들이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로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담헌 전명옥 서예가 '마음이' 전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작품 50여점 출품...30일까지

담헌 전명옥 서예가의 전시회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서 30일까지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담헌 특유의 필법을 선보이는 자리다.

'마음이'를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에는 서예 문인화 대작, 소품 등 50점이 출품됐다.

글씨나 그림 등 작품은 작가의 천품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담헌의 작품은 그림인 듯, 글씨인 듯 그림과 글씨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기품 있는 선비의 성정이 담긴 작품들은 특유의 문기와 정취, 지고한 감성을 발한다.

특히 담헌의 작품에는 '여백'이 살아 존재한다. 방치된 여백이 아닌 작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빈 공간이다. 그 자체로 존재를 드러내기에 여백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이번 전시회 의미에 대해 전 서예가는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해능 스님 일화를 건넸다. 8세기 무렵 중국 광저우 법성사에서 법화가 열렸는데 설법하는 중에 바람이 불었다.

담헌은 "어떤 스님은 '깃발이 바람에 움직인다'고 했고 어떤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능 스님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 비리락

'비리락'

전시 제목을 '마음이'라고 상징한 이유가 이해된다. 서산대사의 시를 비롯해, 나옹선사 시, 최치원 시, 안평대군 시조, 만해 시 등 역사적인 인물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광주 출신 진현성 시인의 시를 소재로 한 작품도 있다.

"꽃피는 화개동엔 오히려 꽃이 지고/ 정학의 동우리에는 아직 학은 아니 돌아오네/ 소중한 흥류교 아래 흐르는 물이여/ 너는 바다로 가고 나는 산으로 돌아가련다"

'서산대사 시'를 모티브로 한 글씨는 활달하면서도 고아한 맛이 깃들여 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한편으로 담담한 심지가 주는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서산대사의 시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진현성 시인의 시 "한층 흠에 우주가 숨 쉬고 있었던 것을/ 말동말똥 담달봉사 내 한평생였네"라는 작품이 주는 맛도 되새길 만하다. 삶의



'서산대사 시'

본질을 꿰뚫어보는 노 시인의 글과 담헌 특유의 서법이 어우러져 보는 맛 읽는 맛을 선사한다.

담헌은 전시를 마치는 소감에 대해 "온 몸으로 터득된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느낀다"며 "조금 깨졌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어야 했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스스로를 낮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피카소의 비밀'

30일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스페인 출신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입체파 화가이자 현대미술의 천재 화가로 손꼽힌다.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등은 그의 천재적인 예술 감각이 투영된 대표 작품이다. 피카소는 회화뿐 아니라 조각, 판화, 도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입체주의(큐비즘) 미술 양식을 창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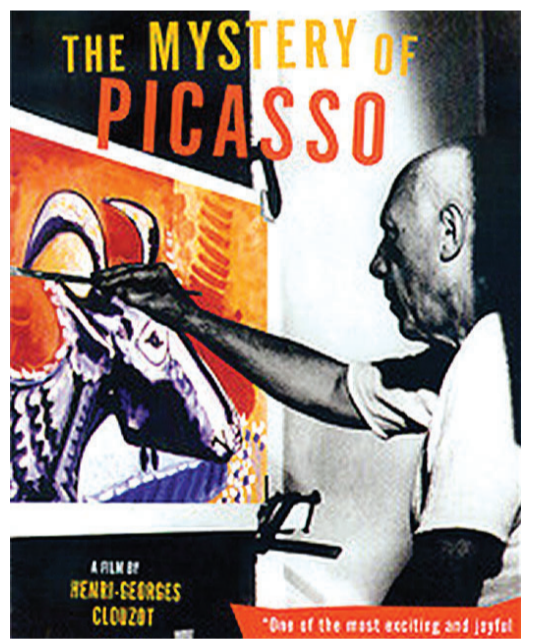
피카소의 삶과 작품의 비밀을 다룬 영화를 통해 사유와 예술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하정웅미술관은 30일 오후 2시 '피카소의 비밀'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평론가 조대영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은 20세기 최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마지막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상영 후에는 피카소의 그림 30여 점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제작됐다. 카메라 앞에 놓인 특수 캔버스 앞에 선 피카소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캔버스를 채워간다. 천재 화가의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창작 과정이 담긴다. 영감의 이미지를 특유의 손놀림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피카소의 열정과 재능은 신비롭다.

조대영은 '하정웅미술관' 예술영화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영화상영회 및 감상회를 이끌고 있다. 원작 소설과 영화를 상호 텍스트로 읽어가는 모임인 '20세기소설영화독본'을 16번째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구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영화평을 묶은 '영화, 룩다'를 펴냈다.

변경현 하정웅미술관장은 "이번 영화 감상회는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의 예술이 어떻게 연유하고 펼쳐지는지를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라며 '피카소의 작업 과정에 담긴 천재화가의 창작방식이 어떻게 현대 미술은 물론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능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정웅미술관 예술영화 상영회는 내년 봄 다 시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이며, 선착순 방문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